

탄핵버스 다시 뜬다…주말 광화문 총집결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 내일 서울 총궐기 참가

광주·전남, 탄핵·특검연장 촉구…금남로서도 집회

오는 2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대거 참석한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23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신안동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올해 첫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본부는 ▲특검연장 ▲신속탄핵 ▲박근혜 구속 ▲자유한국당 해체 ▲2·25 민중 총궐기 성사 등을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 집권 4주년인 이날 서울 총궐기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2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대회는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오후 5시부터는 이은결 탄핵 마술쇼 등 각종 공연이 열리며 시민발언대가 마련된다. 본 집회는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이어 오후 7시30분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등이 있는 종로구 청운동, 효자동, 삼정동 방향으로 행진이 시작된다. 행진 대열은 ‘청와대 포위’를 시도할 예정이며 밤 9시께 행진을 마치고 광화문광장 무대로 돌아와 20~30분간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이다.

25일 상경을 위해 광주에서는 탄핵 버스가 운행된다. 탄핵 버스는 민중 총궐기 당일 오전 10시께 광주시청 앞에서 출발한다. 약 30여 대의 버스가 1000여 명의 시민을 태우고 서울로 향할 예정이다.

여수, 목포, 광양, 목포 등 전남지역에서는 4000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은 조례호수공원, 광양은 광양시청, 목포는 유달 경기장 등에서 오전 9시께 출발한다.

이와 별개로 25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는 박근혜 퇴진 17차 광주 시국촛불집회가 열린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본부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열린 민중 총궐기대회는 100만 집회시대를 열었다. 그 동안 타오른 촛불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 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탄핵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기 위해 서울로 간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3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과 내달 1일 열리는 제17·18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 계획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25일 열린 17차 촛불집회 제목을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로 정했으며,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광화문 광기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퇴진행동은 또, 내달 1일에는 18차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9일 1차 촛불집회 후 처음으로 주중에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될 전망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국정교과서 우회 보급 논란

교육부 학교에 보조교재 활용 공문

장희국 광주교육감 “절대 불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형태로 일선 학교에 직접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지원하겠다’며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급별 읽기 자료’나 ‘도서관 비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우회 보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학교현장에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67%가 반대하고 있으며 최종본에서도 서술의 편향과 오류가 653개나 발견돼 교과서로서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장희국 광주시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연구학교도 안 되니까 보조교재나 도서관 비치용 도서라든가 신청해달라고 한다. 그것도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모든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냈다. 매우 이례적이다. 차암 딱한 분들이네요”라고 비판한 뒤 “학교에서 보조교재나 도서관 비치용으로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설레는 대학 입학식 23일 광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7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해남 AI 고병원성 확진…5개 농가 6만3천여마리 살처분

전남도, 가금류 이동 중지 명령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남 마산면 육용 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도축 출하 및 사료 공급을 위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남군내 가금류 농장 및 종사자에 대해 이동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21일 도축 출하를 위한 검사 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남도는 발생 농장(2만3000마리)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 5농가에서 키우는 오리 등

6만3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확진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사육 중인 육계 7만3700마리 살처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육계는 옮겨를 전남에서 AI 발생 사례가 없고 생육 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해 살처분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남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늘었다. 나주 10건, 해남·무안 3건씩, 영암 2건, 구례·장성·완도 1건씩이다. 축종별로는 육용오리 11건, 씨오리 8건, 산란계 2건이다.

기존 발생사례 혈청형은 모두 H5N6형

이었지만 해남 마산면 농장은 H5N8형이었다. 이번 AI 지속기간 가금류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전북 김제에 이어 전국적으로 두번째다.

전남도내 살처분 농가는 76곳, 살처분 마리수는 138만7000수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는 23일부터 전담공무원 559명을 동원해 도내 전 가금류 농가 임상예찰에 들어갔으며, 사료공장 방역실태도 일제점검하고 있다. 24일부터는 오리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일제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9
해질녘 18:23

달돋이 05:20
달질 16:04

기버은 옷차림 연제품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낮아 춥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은뒤 흐림	-3/7	보성	맑음	-3/6
목포	맑음	-1/6	순천	맑음	-2/7
여수	맑음	-2/8	영광	맑음	-4/5
나주	맑음	-4/7	진도	맑음	2/5
완도	맑은뒤 흐림	-1/7	전주	맑은뒤 흐림	6/10
구례	맑은뒤 흐림	-4/6	군산	맑은뒤 흐림	-4/5
강진	맑은뒤 흐림	-3/7	남원	맑은뒤 흐림	-6/6
해남	맑은뒤 흐림	-3/6	흑산도	맑음	1/6
장성	맑음	-5/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2.5	서~북서 0.5~1.5
남부	면바다 북서~북 2.0~3.0	서~북서 1.0~2.0
남부	면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0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1.0~2.0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1.5~2.5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주간 날씨

25(토)	26(일)	27(월)	28(화)	3/1(수)	2(목)	3(금)
-2/7	0/10	-2/10	-2/13	1/12	1/11	1/12

따뜻한 봄…광주 진달래 3월25일 만개

올 봄 광주·전남지역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봄의 정령인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시기도 2~3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간 기상정보회사인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 봄 개나리의 개화시기에는 광주 3월21일, 전주 3월 24일로 각각 평년보다 2일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진달래 개화시기도 광주는 3월25일, 전주는 3월27일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광주는 이를, 전주는 3일 빠른 것이다.

봄 꽃 개화시기가 다소 빨라진 것은 기온이 전체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광주·전남 봄철 전망’에 따르면 2~3월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평년의 경우 광주지역 월 평균기온은 3월 7도, 4월 12.6도, 5월 17.4도 수준이었다.



‘중학생 성추행’ 광주 고교 체육교사 해임

운동부 소속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 A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모 고등학교 체육 교사 A(43)씨에 대해 공무원벌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임, 수영감독을 맡은 이후 훈련이 끝난 중학생 제자 B양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차 안에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지난 1월 전지훈련을 마치고 동료 학생과 코치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냈고 학교 측은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